

부산아미주부농악단(창단공연)

참 좋은 인연



2013. 10. 6. 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 대극장(연악당)

회원가입
공연문의

■ 단장 강 신 일 010-5488-5941
■ 회장 유 정 희 019-330-2832

주최·주관 부산아미주부농악단

후원 **부산문화재단** (사)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광역시** **민국문화예술위원회**

* 본 공연은 부산문화재단의 2013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출진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공연됩니다.

결실을 시작으로...



선선한 산들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전통문화의 확산과 보존, 그리고 계승의 역사적 의미를 나눌수 있는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려 합니다.

전통예술의 진정한 의미는 오랜 시간속에 묵혀 온 수많은 예인들의 노력에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이어가며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 애쓰시는 예인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의 창단공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더욱 많은 분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계승발전 시켜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민족 고유의 협동과 단결의 두레정신을 이어나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유한 전통문화는 세월의 깊이속에 삶을 대변하는 '희·노·애·락'인 것입니다.

웃고 즐기며 슬픔을 함께 나누고 신명으로 하나되는 참 좋은 인연으로 만나 건전한 생활예술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문화의 깊은 세월만큼 삶의 진실성을 담아 여러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보고자하는 저희 부산아미주부농악단 전 단원들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기원 합니다.

2013년 10월 6일

부산아미주부농악단 단장 강 신 일

풍물의 매력에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 무섭게 이글거리던 태양의 기세도 계절속에 조금씩 누그러져 가고 들판에는 고개속인 벼가 황금물결을 이루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세월을 50년 이상 넘겨온 어머니들이 풍물이라는 참 좋은 친구를 만나 사람들 간에도 참 좋은 인연이 되어 즐겁고 신명나는 세월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의 가치는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소통하여 마음을 전할수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향유하고 즐기고 싶은 마음을 이번 창단공연에 실어 보았습니다.

지난여름 흘려온 땀방울이 결실을 맺고 전통문화가 저희들의 손과 마음에 의해 전승되고 계승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뿌듯한 사명감에 잔잔한 감동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넘겨 황혼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베풀 수 있는 참 좋은 인연이 생겨 너무 행복 합니다.

여러분들도 풍물의 매력에 빠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오늘 저희들의 보잘 것 없는 자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6일

부산아미주부농악단 회장 유 정 희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의 창단공연을 축하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들판에는 황금물결이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는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자기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취미생활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부산아미주부농악단 회원 여러분은 우리의 전통민속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기 어렵고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량을 익혀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전통예술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 과정을 이루는 힘든 노력의 산물로 오늘의 발표회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서툴면 어떻고 장단이 안맞으면 어떻습니까? 배운대로 최선을 다하여 즐거운 한마당 축제의 장을 만들면 그것이 전통민속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회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유정희 회장님을 비롯한 부산아미주부농악단 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3년 10월 6일

사)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김귀엽

창단공연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먼저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의 창단공연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격려의 응원을 보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전승해 나아 가는 모습은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써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을 하늘, 땅, 사람을 섬기고 평화를 사랑하고 가무(歌舞) 능한 민족으로 높은 문화의 중심국가였습니다.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자칫 사라질 위기도 겪었으나 오늘날 민족문화의 맥을 잇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소 안심이 됩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한 문화의 확산은 든든한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문화컨텐츠의 초석을 잇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부산아미주부농악단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임을 명심하시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여 그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오신 많은분들 하시는일 잠시 놓으시고 한마당 신명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라며 하시는일 모도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 합니다.

2013년 10월 6일

무형문화재 제18호 고분도리걸립 예능보유자 구덕민속예술보존회 부이사장 정우수



● 영남성주굿

문헌에는고사창 이라고 되어 있으며 집 입자인 성주신을 모시고 가족구성원의 재수발원을 축원하는 것으로 마을의 풍물패가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걸립(乞粒)을 할 때 고사떡담의 형식으로 불려지던 것이다. 풍요와 안락 그리고 벽사진경으로 마을굿을 행한다. 영남성주굿은 영남 특유의 소리목으로 부르기 때문에 감칠맛이 있으며 빠르면서도 억제되는 등 흥겨운 묘미가 있다.

● 가야금병창 (초청공연)

노래와 반주를 한 사람이 겸한 것으로 창이 주가 되고 가야금은 부가 된다. 기원은 남도에서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가 발생할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가야금산조로 이름을 떨치던 연주자들은 대부분 가야금병창을 겸하였다. 가야금이 노래의 반주에 쓰 이기 시작 한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삼현삼죽(三絃三竹)에서 비롯하여, 고려가요 및 조선시대의 가곡에까지 전통을 잇고 있으나 모두 병창은 아니 었다. 가야금병창은 가야금을 타면서 단가나 판소리, 민요 등을 함께 부르는 음악형태로 노래 위주로 전개되지만 가야금의 반주가 어우러져 섬세함을 더해줍니다. 연주될 곡목은 자진모리 ~ 엇모리 장단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노래한 "사철가"와동살풀이 장단으로 구성된 "어부의 노래" 로 신민요의 경쾌함과 흥을 신명나게 꾸며보았습니다.

● 삼도풍물가락

각지방마다 말씨가 다르듯 풍물가락도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남, 호남, 중부지역의 가락들을 재구성하여 사물놀이 연주곡으로 완성시켰다. 사물악기(ฆ과리, 북, 장구, 징)의 기교와 조화가 다채로워 청중들의 귀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 창작타악 락·천·지 (매구놀이 마당 초청공연)

여러종류의 북들이 혼합연주를 통하여 다양한 울림과 리듬을 현대정서에 맞추어 편곡한 작품이다. 역동적인 움직임과 대북의 웅장한 소리는 다이내믹의 결정체라 할수 있다. 현대적 세련됨과 전통적 멋스러움을 조화시켜 표현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수 있다.

● 부산농악

농악은 걸림패와 남사당패가 연행하던 음악과 놀이의 종합예술이다.풍물 가락뿐만 아니라 춤과 기예, 놀이들이 골고루 섞여가며 각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최선의 재능을 보여주는 장인 것이다. 특히 이번 관국은 부산농악을 좀더 역동적으로 재구성 하였다.



총연출 강 신 일



안무 이 현 지



안무 이 복 남



문 성 속



최 민 정



와타나베 아쯔꼬



장 혜 자



유 정 희



이 선 화



이 미 옥



최 옥 순



김 옥 희



최 연 옥



이 정 애



장 희 희



시 경 애



강 경 남



김 경 순



김 기 화



조 경 애



김 애 속



이 령 아



구 미 란



김 연 희



김 현 영



최 순 남



채 영 속



남 명 화



매구놀이마당



여성문화회관 가야금단



여성문화회관 가야금단 반주 강봉천



사회 김익현

주·요·예·술·활·동

2009 창단

2010 제14회 충남 도지사기 전국주부풍물대회 장려상

2011 강서예술촌 지역작가 초대전 초청공연
제16회 기장 갯마을 아지매축제 풍물경연대회 금상
제10회 수원 주부국악제 금상

2012 부경대학교 거리길놀이 페레이드 참가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참가
제17회 기장 갯마을 아지매축제 장려상
부산농악60주년 기념공연 식전행사

2013 조선통신사 페레이드 참가
제18회 기장 갯마을 헤너축제 금상

도·움·주·신·분·들

- (사)구덕민속예술보존회 이사장 김귀엽 051) 242-3100
 - (사)구덕민속예술보존회 부이사장 정우수 011-875-3100
 - 무형문화재6호 부산농악보존회 회원일동
 - 무형문화재18호 고분도리걸립보존회 회원일동
 - 무형문화재11호 구덕망개터다지기보존회 회원일동
 - 부산진문화원 원장 박수용
 - 풍류전통예술원 박종환 010-2781-3888
 - 부산예술단 김상현 011-585-0115
 - 풍물패 이부디 최의철 010-5194-6183
 - 버숨새 예술단 최정민 051) 751-3100
 - 교사풍물연구회 놀이패 '굿거리' 성낙길 010-3867-7198
 - 하울 풍물패 김정용 010-9124-8623
 - 내드름 전통예술연희단 정동훈 010-2577-3701
 - 부산민속국악사 이근재 051) 326-3711, 010-874-3710
 - 부산 한음림 국악기 김한동 051) 755-3192, 010-6560-1590
 - 팔음 국악기 전문점 강전운 051-553-8447, 011-9400-7185
 - 전통예술원 정재욱 011-577-8282
 - 낙동민속 보존회 김학근 051) 342-1771
 - 신일동 1급 정비공업사 이광용 051) 266-1922, 011-577-1922
 - 부산아미주부농악단 회원일동
 - 부산풍물패 사물놀이 "이음쇠" 회원일동
 - 강서예술촌 촌장 강세우 010-4480-1566
 - 아미동 주민자치센터 회원일동
 - 박애영 한웃 051) 633-6339
 - 뷰스튜디오&중앙사진학원 박창현 011-3578-7927
- »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